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원주시 사회복지인 " 합심·단결 더 나은 사회복지 구현"	1
뉴스신	온라인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군 청년농업경영인 연시총회 참석	2
강원도민일보	22면	소양호수 둘레길 사업 현장 방문	3
강원도민일보	13면	삼척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3
江原日報	16면	철원 4-H연합회장 이·취임식	3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강원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4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평창~정선 KTX 신설 새 시대 열자	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6
江原日報	01면	무섭게 오른 공사비에 SOC사업마저 멈췄다	7
江原日報	05면	비상벨 없고 보안등 고장나 ... 안심귀갓길 유명무실	8
江原日報	06면	방학 중 하루 5시간씩 기초학력 향상에 매진	8
江原日報	06면	“늘봄학교 졸속 시행 규탄”	9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푸드테크' 미래인재 육성 신산업 박차	9
강원도민일보	13면	동해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발빠른 대응'	10
江原日報	14면	‘고독사 막아라’ 심리 상담·돌봄 지원	10
강원도민일보	16면	청정 화천산천어축제 호평, 자원봉사자 한몫	11
江原日報	10면	옛 102보충대에 軍자녀학교 '산 넘어 산'	11
江原日報	12면	"2018때 만큼 외국인 몰려" 상가 신바람	12
강원도민일보	06면	폭설 이어 '북극한파' 도전역 강타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삼척 원전 반복 거론 안 된다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노로바이러스 유행, 각별한 주의를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정치권, 총선 새판 짠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해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직장인 급여 최하위권, 시급한 좋은 일자리 대책	16

2024 01 23 ()

강원도민일보

원주시 사회복지인 " 합심·단결 더 나은 사회 복지 구현"

시 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



▲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2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열렸다.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의도 강원도민일보 원주본부장·전무를 비롯,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홍연희 10대 회장이 이임하고 박만호 11대 회장이 취임했다.

박 회장은 "협의회는 원주시 성장과 함께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푸드뱅크·마켓, 연탄은행, 행복한노인복지센터 등 많은 활동을 하며 발전해 왔다"며 "사회복지인들과 합심·단결해 더 나은 사회복지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사회복지인들의 그간 활약상에 박수를 보낸다"며 "시도 진정한 지역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협의회와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축사했다. 권혜민

2024 01 23 ()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군 청년농업경영인 연시총회 참석

남원모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 홍천군 청년농업경영인 연시총회 참석

[뉴스신] 신영재 홍천군수는 1월 20일 늘프름 한우 프라자에서 열린 홍천군 청년농업경영인 연시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영록 군의장, 김광수 군의원, 이영욱, 홍성기 도의원, 문명선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윤대기 홍천군청년농업경영인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22



소양호수 둘레길 사업 현장 방문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울)국회의원, 양숙희 강원도의원,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등은 22일 춘천 북산면 청평리 일대에 5.9km 길이로 조성되는 소양호수 둘레길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양숙희 도의원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13



삼척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22일 삼척농업기술센터에서 박상수 시장과 양희전 시의회 부의장, 심영곤 도의원 등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 01 23 ()

16



철원 4-H연합회장이 취임식 철원군 4-H연합회장 이·취임식이 22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기호 국회의원, 이현종 군수, 박기준 군의장, 엄기호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김상혁 회장이 이임하고 유민호 회장이 취임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19

강원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의정칼럼

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기위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시대의 말이다. 식량 확보와 보관이 쉽지 않았던 과거 농경사회가 기아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자, 충분한 식량에 대한 바람이 담긴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대형산업으로 발전한 현재도 결식은 존재한다. 어떤 이는 아침에 바빠 식사를 만들어 먹을 시간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이는 아침식사 대용 간편식의 구매력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과되는 아침식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끈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대학, 한국식품연구원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청소년 80여명을 3그룹으로 나눴다. 10주간 ‘밥 중심의 한식’, ‘빵 중심의 양식’, ‘아침미 제공’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침을 먹은 학생들은 학습효과 관련 신경전달물질의 증가, 정서적 안정과 학습능력의 상승, 건강증진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별한 점은 밥 중심의 한식을 먹은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뇌파 안정이완지표는 1.3

배, 주의집중력 지표는 1.7배 정도 더 높았다. 아침식사의 중요성과 아울러 밥 중심의 식사는 학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해 9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쌀 소비전략과 관련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께 도내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 “부모들이 바빠 미쳐 챙길 시간이 없거나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쫓기는 등의 여러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성장과 체력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적향상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만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확대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사회복지단체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 강릉지역 7개 학교 학생 대상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추진했다. 반응이 좋아 2~3년 후부터는 각 학교의 교육복지사들이 사업 확대를 희망했다.

관련 예산이 필요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서 지역사회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릉시 착한의원연합회(회장 김남동)가 예

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2023년 기준 강릉 시내 12개 학교에서 120여명의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아침 식사 형태는 특별한 조리가 필요치 않은 가공식품 형태의 간편식과 샌드위치나 주먹밥과 같은 완전식으로 제공됐다. 만약도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면, 도내 농가의 쌀을 이용한 간편 가공식 위주의 식사 제공이 효과나 영양면, 학생의 기호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를 지원하는 일도 될 것이다.

15만여명의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어렵지만, 이런 사례에서 보듯 사업 추진 의지만 있다면 아침식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쌀 가공 간편식 위주의 제공을 위해 각 기초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하고, 지역 농협 등과 협업을 추진한다면 교육청의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성장하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만큼 비용 대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학교 아침 식사 제공’을 제안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江原日報

2024 01 23 ()

19

1960~1980년대까지 정선을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에 에너지원을 공급해 오던 국내 석탄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심장부였다. 석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

라 철도수송산업 역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석탄 수요가 석유로 대체되면서 석탄산업은 사양화되고 지역경제는 장기 침체에 놓이게 됐다. 정선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을 시작하며 한때 철도관광의 메카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곳곳에 레일바이크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상실했다.

정선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

노와 함께 고원 리조트가 개발돼 사실상 국민휴양지로 이용되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다. 그러나 여행객이 정선을 방문하려면 차량이나 철도로서울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태백선 철도 노선에 준고속열차 ITX마음이 운행되면서 전보다 접근성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훌륭한 관광지를 조성하고도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아 교통 오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남부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접

강원포럼

김기철 강원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근성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강원자치도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도정목표로 선언했고 강원권 순환철도망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꼽았다. 강릉선 KTX와 정선선 노선을 연결하는 평창~정선 KTX가 신설된다면 낙후된 정선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객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태백선과 정선선 철도 노선을 KTX 노선으로 개선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폐선을

검토했을 정도로 철도 이용수요가 없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사업 현실화가 쉽지 않은 것이다. SOC사업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중요하지만, 평창~정선 KTX 철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한 채 지역의 경제 침체와 인구소멸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평창~정선 KTX 신설 새 시대 열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역과 태백역을 잇는 최단거리 철도 노선으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고 인접 시·군과의 거리 역시 가까워질 것이다. 기존 열차와 비교해 소요시간이 약 1시간이 단축돼 110분 내로 서울역과 태백역을 연결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도 가능하기에 강원 남부지역 KTX 열차 운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가 위치한 정선 남부로의 관광객 집중 현상을 해결, 군 전체와 인근 지역으로의 관광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평창~정선 KTX 철도연결망 구축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강원 남부지역은 과거 석탄산업과 철도교통의 중심지였기에 산업 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며, 그중 정선군은 세계문화유산 아리랑의 고장이자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써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평창~정선 KTX 철도연결망 구축을 통해 강원 남부가 활기를 되찾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17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23일
오전 9시
30분 속초

시농협엑스포점대강
당에서 열리는 농촌자
원반딧연시총회에 참
석한다.

2024 01 23 ()

江原日報

01

무섭게 오른 공사비에 SOC사업마저 멈췄다

공공 공사 발주 유찰 속출

낮은 공사 금액 입찰 참여 저조
올해 8건 모두 시공사 못 찾아
제2경춘국도 건설도 3년째 담보
업계 “비용 현실화 시급” 지적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관 발주 공공 공사들의 유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발주기관과 시공업체 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입장 차이 때문인데,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굵직한 SOC 성공과 건설업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공공 공사 유찰 잇따라=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찰한 한림대의 ‘강의실/PC실 내 조명 및 천장형 냉난방기 제어공사’는 시공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유찰됐다. 입찰에 참가한 2개 건설사 모두 발주기관의 예산을 초과하는 입찰금액을 투찰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림대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를 낸 상태다.

지난 4일 결과가 발표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축전차 유지보수공사’, ‘전기시설장비 유지보수공사’, ‘기계시설장비 유지보수공사’ 공고도 유찰됐다. 각각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하면서 경쟁입찰이 불발된 것이 원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낮은 공사비와 연 관돼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목소

리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가까이 올랐다”며 “예산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는 발주기관들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사비를 책정하고 싶어 하고, 업체들은 적자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 둘 사이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 SOC도 타격=대형 SOC 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큰 상황이다.

강원자치도의 10년 숙원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제2경춘국도는 2022년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에 부쳐졌지만, 시공을 맡겼다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 사태를 겪었다. 사업이 장기화되며 총 사업비는 당초 계획(1조800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확정 이후 진행되는 시공사 선정 또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1,000억원 이상 SOC 프로젝트 8건은 무응찰 등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공사비 현실화 시급=전문가들은 정부 취지대로 신속한 SOC사업 추진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토교통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1조원(5.3%) 늘어난 20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이 중 65%에 해당하는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기적으로 공사비 인상이나 하락분을 반영하는 예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2024 01 23 ()

江原日報

05

비상벨 없고 보안등 고장나 ... 안심귀갓길 유명무실

강원지역 지자체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안심귀갓길'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춘천, 원주, 속초, 삼척, 태백, 홍천, 횡성 등 7개 시·군에서 안심귀갓길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귀갓길은 여성, 어린이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는 안심귀갓길 운영을 위해 연간

연간 수천만원 예산 투입

안전장치 방법용 CCTV뿐

대상 선정기준도 의문 지적

전문가 "인력 확대도 필요"

700만~5,900만원의 예산을 쏟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안심귀갓길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찾은 춘천시 교동의 안심귀갓길에는 노면 표시와 방법용 CC·TV를 제외하고 별다른 안전장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에 위협을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도 없을뿐더러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보안등도 고장 난 상태였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밤 10시40분께 술에 취한 40대 A씨가 '밤늦게 고성방가 하지 말라'며 자신을 다그치던 50대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해당 안심귀갓길에서 지속적으로 고성방가와 노상방뇨를 하며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춘천시 우두동의 골목길은 신사우과 출소가 근처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안심귀갓길로 선정됐다. 이곳에서 만난 C(여·52·춘천시 사농동)씨는 "새벽까지 운영

하는 맛집이 많아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안심귀갓길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명이나 CCTV 등의 인공 감시환경으로는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따른다"며 "안심귀갓길의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경찰, 자율방범대 등의 인력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겸·김태훈기자

2024 01 23 ()

江原日報

06

방학 중 하루 5시간씩 기초학력 향상에 매진

지난 19일 오전 춘천초교 6학년 4반 교실에는 세 명의 6학년 학생이 모여 앉아 '더배움을 위한 수학' 교과서를 펼치고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때문 '까르르' 웃음도 터져 나왔다.

새 학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방학 기간을 활용해 추진하는 '전환기 이음교육'에 참가했다. 아이들은 지난주부터 3주간 월·금요일 하루 5시간씩 수학과 체육, 영어 등 초교 수업을 복습하며 중학교 입학에 대비하고 있다.

춘천초교 '전환기 이음교육' 현장 찾아가 보니

중학교 진학 앞두고 수학·체육·영어 초교 수업 복습하며 대비 학교 316곳·학생 1만5천명 자발적 참여 ... 학부모 만족도 높아

이상현 지도교사는 "이번 전환기 이음교육은 기존의 방학 중 프로그램과 달리 교재비 외에 간식비, 강사비 등도 지원돼 운영이 수월하다"며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집중해 학생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님들도 아주 좋아하신다"고 귀띔했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에서 전환기 이음교육을 포함한 기

초학력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초등학교 212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72곳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은 총 1만4,929명이며 참여 교사는 외부 강사를 포함해 총 2,303명이다. 프로그램은 교과캠프 및 전



◇지난 19일 오전 춘천초교 6학년 4반 교실에서 예비 중학생 3명이 이상현 지도교사의 수업을 듣고 있다.

환기 맞춤형 프로그램,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등 총 2,118개에 달한다.

시·군 지역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도 순회 학습지도, 언어치료, 기초학력 향상 캠프 등을 운영한다. 19, 20일에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예비 고1 진학캠프가 열리기도 했다.

심영택 도교육청 더 나은학력지원관은 "이번 겨울방학에 처음 시행되는 이음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와 기대가 높다"며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를 잘 분석해 희망하는 곳에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희기자 yuinyo@kwnews.co.kr

2024 01 23 ()

江原日報

06

“늘봄학교 졸속 시행 규탄”

전면 도입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
전담 인력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올해 강원교육 현장에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조 강원지부 등 세 개 단체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장 노동자와 소통 없는 늘봄학교 졸속시행을 폐기하고 협의를 거쳐 재시행해야 한다”며 정규수업과 늘봄학교 분리 및 교사의 늘봄학교 배제를 요구했다. 또 기간제교사 채용보다는 기존의 초등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주

장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전국 17개 교육청이 함께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도 내 초등학교의 40%에 해당하는 133개교를 시작으로 하반기 확대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사 340여명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돌봄전담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적극 활동하고 있으며 방과후전담사 113명을 채용해 방과후돌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교사와 늘봄학교 업무를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2024 01 23 ()

강원도민일보

09

춘천시 ‘푸드테크’ 미래인재 육성 신산업 박차

강원대 대학원 전공 신설 협력
학사과정 확대 검토 25일 간담회
시, 연구지원센터 유치 도전

춘천시와 강원대가 푸드테크 관련 대학원 과정을 신설, 인재 육성에 나섰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대는 2024학년도 대학원과정에 푸드바이오학과를 만들고 푸드바이오학 전공으로 석사과정 4명, 박사과정 2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식품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나노기술, 대체식품 관련 기술 등을 배우게 되며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개인맞춤형 식품 개발,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구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푸드바이오학과는 춘천시와 강원대가 협력해 만들어졌다. 앞서 춘천시와 강원대, 한림대 등은 지난해 말 협약을 맺고 푸드테크 분야의 역량을 결집, ‘춘천형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춘천시와 강원대는 현재 대학원 과정인 푸드바이오학과를 학사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푸드테크 산업의 확장, 인재양성을 위해 육동한 시장과 김현영 총장이 25일 간담회를 갖는다.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식품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육동한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로 춘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보다 앞서 푸드테크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선도에 나섰다. 이밖에도 춘천시는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도전한다. 전국에서 3곳을 선발하는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어렵다 할 연구 시설을 갖추기 힘들게 현실”이라며 “연구지원센터 유치와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동해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 '발빠른 대응'¹³

시, 무연고 사망 등 매년 증가
25개 과제 예산 74억원 투입
고립가구 지원조례 3월 시행

동해지역에서 고독·무연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자 동해시가 체계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동해시에는 지난 2018년 7명이던 고독사·무연

고 사망자수가 지난 2022년에는 19명으로 증가했다.

동해시의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무연고 사망자와 그 비중은 2018년 0.95%(사망자 731명 중 고독사 7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은 1.42%(702명 중 10명), 2021년은 2.05%(680명 중 14명), 2022년은 2.25%(841명 중 19명)로 고독사 수와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1인가구수도 지난 2016년 1만54

가구서 2022년 1만3293가구로 증가했다.

시는 지난 5일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2월 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공포,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고독사 발생 감소, 지역 주

도형 고독사 대응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목표로 25개 과제에 74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훈석 시 복지과장은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고독사 예방에 일조하는 등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江原日報

2024 01 23 ()

'고독사 막아라' 심리 상담·돌봄 지원¹⁴

동해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동해시가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동해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16년 1만54가구에서 2022년 1만3,293가구로 6년 새 32.2%(3,239가구)가 증가했다. 일반 사망자 중 고독

사·무연고 사망자 비중도 2018년 0.9%에서 2022년 2.2%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저질환으로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

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돌봄지원사업, 사망자 장례 서비스 및 유품 정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동해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16

청정 화천산천어축제 호평, 자원봉사자 한몫

42개 봉사·사회단체 환경 정화
2군단·7사단 군장병 교통 정리
1372명 봉사 전년비 160% 늘어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넘어서며 순항하는 202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의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은 지역 주민과 단체, 군장병의 적극적인 자원봉사이다.

22일 화천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개막한 화천산천어축제에는 모두 42개 봉사단체와 사회단체가 참가해 담당일을 정해 축제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육군 7사단과 2군단 장병들도 매일 축제장 곳곳에 배치돼 관광



화천주민과 단체, 군장병들의 자원봉사 덕분에 화천산천어축제가 청정 축제로 치러지고 있다.

객들의 안전한 축제장 진입과 귀가를 위한 교통 봉사, 호국이 체험단 부스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군새마을회, 대한적십자사 군지회, 의용소방대 군연합회, 산천어 행복나눔단, 물빛도우미

회, 바르게살기 군연합회, 사랑의 봉사대학, 삼육지역봉사회, 생활개선 군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과 문화예술체육단체는 물론 유해조수 포획단까지 참여하고 있다.

화천군은 개막일부터 지난 21일까

지 군장병을 포함해 연인원 1372명이 자원봉사에 나서, 지난해 같은 기간 859명과 비교해 1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는 자원봉사 누적 참여자가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제장 주변과 시가지 일일 등주요이동 통로에는 휴지조각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들이 화천산천어축제장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축제의 규모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 번 놀라고 깨끗한 축제장에 두 번 놀란다고 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익호

江原日報

2024 01 23 ()

10

옛 102보충대에 軍자녀학교 ‘산 넘어 산’

춘천시, 국방부·2군단에 건의했으나 해결과제 수두룩
軍 자체 활용 입장 설득·설립비용 마련·법 개정도 필요

【춘천】춘천시가 신북읍 옛 102보충대 자리에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 설립을 건의하고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육군 2군단을 방문해 2016년 해체된 102보충대 부지의 활용을 바라는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5

월에는 국방부를 찾아 마찬가지로 고교 설립을 건의했고 국회와 도교육청에도 학교 설립 가시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옛 102보충대 자리에 파주 한민고와 유사한 전국 단위 모집의 사립고교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파주 한민고는 정원의 70%를 군인 자녀로 선발하고 전학생 기숙사 체제

를 갖추고 있다. 201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해마다 우수한 대학 진학 실적을 기록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던 곳이다. 철원과 화천, 양구 등 동부전선 군부대 밀집 지역과 연결한 춘천의 지리적 환경도 학교 설립 제안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다만 시의 바람대로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 설립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102보충대 자리에 이미 타 부대가 이전 주둔 중으로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국방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다. 지난해 3월 시와 강원자치도, 육군 2군단, 한기호 국회의원 등이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도 군은 ‘자체 활용’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걸림돌은 막대한 학교 설립 예산이다. 시는 한민고 설립 당시 1,000억원 안팎이 투입된 점을 고려, 건설 자재 상승분을 감안해 기숙사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려면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한민고 설립 당시 국방부가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 공공 재원 투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까지 필요한 실정이다. 타 광역 지자체에서도 군 자녀를 위한 고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같은 문제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당장의 상황 진전을 바라기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부터 차근차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024 01 23 ()

12

江原日報

“2018때 만큼 외국인 몰려” 상가 신바람

“아침·점심으로 손님 발길... 강릉 상경기 살아나”
상인들 영문 메뉴판 제공·바가지 근절 적극 나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본격 시작되면서 경기 침체로 불황을 이어왔던 지역 상권이 올림픽 특수를 만끽하고 있다.

강릉시 안현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이영신(54)씨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강원2024 개막 이후 하루 평균 10개 팀이 넘는 외국인 손님들이 아침·점심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손

님은 2~3개 팀이었지만 불과 며칠 새 3배가량 발길이 늘었다.

이씨는 “대회 관계자 숙소가 인근에 있어 많은 외국인 손님이 오고 있다”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와 견줄 만큼 주변 상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안희재(48) 대표가 운영하는 교동의 한 고깃집도 호황이다.

독일팀 코칭스태프들은 삼



◇지난 21일 강릉 교동의 한 식당이 외국인 손님으로 가득차있다.

겹살 등 K-바비큐와 한국 맥주 맛에 빠져 연이어 주문했고, 이를 연속 안씨의 가게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다.

더욱이 선수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는 이번주

내내 하루 2~3개 외국인 팀이 예약을 걸어둔 상태다.

안씨는 “요즘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단체 예약이 더 많은 것 같다”며 “외국인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문

메뉴판도 제공하고 영어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단체들도 특수 극대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요 상권에서 외국인들의 관광을 돕고, 바가지 요금 근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무 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교통·유천택지부터 경포동까지 외국인 손님으로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친절 서비스로 활황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류호준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06

폭설 이어 ‘북극한파’ 도전역 강타

오늘 도전역에 한파특보 ‘비상’
추위 탓 추정사망자도 3명 확인
야외근무자 한랭질환 발생 우려

강원도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20도 내외의 맹추위가 강원도를 찾아올 전망이다.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산지를 중심으로 맹추위가 예고되면서, 한랭질환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벌써 지난해 12월부터 1월 21일까지 강원도내 발생한 한랭질환자만 33명이다.

22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영서와 산지는 한파경보, 영동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3일과 24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8~-13도, 산지 -21~-17도며 영동은 -13~-10도로 예보됐다. 이 날 낮 최고기온은 영서 -9~-6도, 산지 -13~-11도, 영동 -6~-3도의 매우 추운



월형 영하 16.1도, 화천 영하 12.5도, 횡성 영하 10.4도, 평창 영하 9.1도 등 도내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인다. 유체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추위는 24일에도 이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영서 -18~-12도, 산지 -21~-17도, 영동 -13~-10도를 보이겠다.

별써 올 겨울 들어 강원도에는 33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 3명의 추정사

망자가 확인됐다. 이번 한파에는 청소년동계올림픽의 야외근무자들도 있어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강원도내에서 발생

한 한랭질환자는 총 33명이다. 경기도 4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인구 규모로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

23일부터 특히 대회가 열리는 산지 중심으로 최저 -21도의 기온을 보이면

서, 야외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선수와 관람객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도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최강한파 이유는?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반구 대기 상층에는 몽골 서쪽과 베링해 쪽에 고기압이 각각 자리해 공기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나라 북동쪽엔 저기압이 자리했다. 에 북쪽 찬 공기가 두 고기압 사이를 통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지상의 경우 중국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국내로 찬 북서풍을 유입시키고 있다. 고기압 ‘블로킹’에 대기 상층 동서 흐름이 막히면서 고위도 찬 공기가 남하하는 구조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 19

삼척 원전 반복 거론 안 된다

-삼척시 에코라이프타운 추진, 정부도 '사용후 핵연료' 직시하길

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핵심 내용을 담은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과거 원전 후보지에 올랐던 삼척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삼척은 정부의 전기본 수립 때마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후보지 여부를 둘러싸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파장이 컸기에 이번에도 긴장한 가운데 발표를 주시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삼척은 원전 후보지 지정과 해제를 반복한 가운데 소모적인 분란을 발생시켰습니다.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업과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 과거 원전 후보지에서 해제된 대진 지역에 동해안 최대의 자연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까지 선정됐습니다. 상반기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오는 10월쯤 착공 계획으로 순조로 운데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합니다.

삼척의 원전 후보지 재등장설에 대해 시 측에서는 “에코라이프타운 관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율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전 건설·유치 등 같은 지역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논의와 검토가 결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관련 더 이상 추측이나 억측으로 지역사회가 동요하지 않길 바

라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삼척 원전카드를 다시 내밀 가능성이 무결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언급이 여러 번 있었기에 현 정부의 친 원전 정책이 이번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차 전기본이 마지막이었으나, 이번 11차에 원전 신규 건설이 포함되면 9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신규 원전 후보지가 능성 높은 지역은 과거 원전 해제가 이뤄졌던 곳이 우선순위에 오르기 쉽습니다. 곧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은 인접한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 주민들의 시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 12월 울진범대책위원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반세기 이상 발전소에 임시 적체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기상 이변 속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에 민감한 삼척 주민 우려를 불식하도록 삼척시와 시의회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23 ()

/ 19

노로바이러스 유행, 각별한 주의를

-전국적 확산, 올림픽 기간 예방 홍보 필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또는 음료를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탈수 증상이나 심한 복통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영유아와 노인은 합병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강원 도내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경기장 안팎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감염증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 감염병관리 지원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주차 기준 도내 5개 의료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총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명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노로바이러스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 따르면 구토,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고, 올해는 구토를 호소하는 영유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행은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결과 환자 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

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와 음식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고 생굴과 조개, 회 등 어패류나 수산물 등은 익혀서 먹어야 안전합니다. 감염 이후 탈수 증세가 심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수분 섭취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당초 설 연휴에 가동하려던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겨 지난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질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는 강원 동계 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예방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6일엔 개최지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검사를 진행한 6명 중 경기 심판 2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직위와 지지체는 대회 기간 선수와 관중들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등 시설을 점검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해야 합니다. 조리과 배식에도 안전을 기해, 음식 섭취로 인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주변 전통 시장과 식당 위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최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해, 대회에 오점을 남기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23 ()

/ 19

정치권, 총선 새판 짚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해야

여야 예비후보들이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모두 총력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21일 기준 도내 8개 선거구에는 2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이 등록한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각당의 공천 심사를 앞두고 당내 경쟁 상대 사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치열하다. 예비후보들은 오프라인상에서는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고 출퇴근길 주요 거리 인사에 나서며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다. 여론 조사 참여를 호소하

거나 자신의 장점과 활동을 부각하는 문자를 발송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후보도 많아지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도 지역구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정책 공약을 고심하며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후유증도 감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럴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이러다 총선이 대립과 분열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권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유권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공약(空約) 남발, 무원칙한 합종연횡 등의 낡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국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

도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아직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여야는 선거구 확정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선거구 확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앞으로 피 말리는 수 싸움이 벌어지며 시간이 지체될 공산이 높아졌다. 여야 모두는 총선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혁신적인 공천과 인재 영입을 통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구

시대적 이념 및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패거리 정치와 기득권을 털어내고 과감한 대안 세력을 발굴해야 한다.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정신

여야 예비후보들, 총력 체제 구축 나서

선거구 조기 확정, 유권자 판단 도와야 할 때

새 기반·새 정신으로 무장할 때 국민이 성원

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시작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한 국회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는 각오의 ‘공천 혁신’에 여야는 정치적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공천 기준을 밝혔다. 즉,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기준은 시대적 소명을 깊이 깨닫고 있는 인사, 나라 현안에 평소 많은 고민을 해왔고, 문제 해결에 무수한 시간을 들이고 또한 성과를 낸 인사, 즉 이에 정통한 지식, 경륜, 경험을 지닌 실력 있는 인사, 청렴하고 정직한 인사, 출마의 주된 이유가 나라에 진정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고, 실제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인사여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1 23 ()

/ 19

道 직장인 급여 최하위권, 시급한 좋은 일자리 대책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되는 도내 직장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울산과의 격차는 1,160만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내 근로자의 1인당 1년 총급여액은 평균 3,576만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4,213만원)보다 637만원 적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주(3,570만원)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년 연속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울산(4,736만원)과 강원의 급여 격차는 1,160만원으로 2021년 1,056만원보다 더 커졌다. 연평균 급여가 4,000만원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강원을 포함해 제주(3,570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타 지역과 급여가 연간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서 실업 상태이거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외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역시 임금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규직 취업 문을 통과해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자 '탈강원'을 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 격차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급여 격차는 임금 구조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곳을 찾아 지역 청년들이 떠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 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 선순환 체제로 돌아설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연봉의 문제만이 아니다. 재직 시 연봉의 수준은 결국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에도 영향을 끼치는 구조이니 재직 중이나 은퇴 후나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전방위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한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기업, 공기업 등의 일자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도내 고용시장의 구조 탓이 가장 크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가 나서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적 고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도 원인일 것이다. 도의 경우 오히려 갈수록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제대로 된 기업을 키우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 상공계, 학계 등의 협력과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